

## 『한민족어문학』 제79집 편집자의 말

제79집에 실린 논문은 총 9편으로 (한)국어교육 4편, 고전문학 1편, 현대문학 4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논문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시대를 반영한 관점의 선도성이 돋보이는 논문도 적지 않다. 다만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획으로 담아 내지 못한 점과 전공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허재영의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 김억조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 최보선의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 -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채숙희의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로 모두 4편이 실렸다.

허재영의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은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우리의 번역 학술어 수용 태도와 중국어 학술어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논문이다. 중국어 번역 학술어는 중국어 역법(譯法), 재일본 유학생 잡지 등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신명사훈찬』과 같이 중국 고전에서 어휘 자료를 찾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번역 학술어 가운데 일부는 우리에게 수용되었으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학술어로 대체된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김억조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은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을 제안하

였다. 사자성어 목록 선정에서는 말뭉치 빈도에 기반을 두어 선정하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그것을 제시할 때는 선행어 내지 후행어의 공기 관계를 파악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논문이다.

최보선의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 -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는 외국인 유학생 작문에서 관형절을 살펴보았다. 관계절은 접근가능성 위계 (AH)와 비교해 보았고 동격절과 연계절은 사용이 적었고 명사적 관형절의 사용이 매우 많았다.

채숙희의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 ’는 국어교재의 지시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시어와 관련된 실제적인 교재 개선 방향을 모색한 논문이다. 목표항목으로 제시된 지시어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문, 듣기 지문, 과제 등 교재 텍스트에 포함된 지시어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제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최원오의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감정의 두 양상, ‘식욕-음식’ 짝패와 ‘성욕-여성’ 짝패의 교차와 변주’로 1편이 실렸다.

최원오의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감정의 두 양상, ‘식욕-음식’ 짝패와 ‘성욕-여성’ 짝패의 교차와 변주’는 혐오감정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 조건이자, 또 다른 본능들인 식욕, 성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짝드는 데서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를 ‘식욕-음식’의 짝패, ‘성욕-여성’의 짝패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태옥의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 연구’, 김경민의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 김영학의 ‘김우진 희곡 <이영녀>에 나타난 몸성 연구 - 3막을 중심으로’, 김현주의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흥범도> 연구’로 모두 4편이 실렸다.

김태옥의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 연구’는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를 바탕으로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과 소련 내 행적 등 오장환의 전기적 요소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오장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8년,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월북 이후 오장환 전기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경민의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은 그간 페미니스트, 여류작가로만 규정되었던 나혜석의 삶과 문학을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라는 보편적 범주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글이다.

김영학의 ‘김우진 희곡 <이영녀>에 나타난 몸성 연구 - 3막을 중심으로’는 김우진 작 <이영녀>의 3막을 대상으로 희곡텍스트에 구현된 연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영녀>의 3막에서 인물의 몸성과 소리의 몸성이 텍스트의 근간을 이룬 점과 텍스트의 연극성을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메를로 폰티의 ‘몸의 현상학’을 연구방법론으로 삼았다.

김현주의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흥범도> 연구’는 <아부지와 흥범도>에 대해 문금동의 삶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고려인들의 생활사를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작가의 가족사를 넘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고 보았다.